

‘e’ 세상과 ‘巽’ 세상

현재를 전자기기에 의해 움직여지는 ‘e’ 세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야흐로 자본과 인력이 e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유행으로 보고 있지만, 유사 이래로 기술의 변혁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왔듯이 현재의 인터넷은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e 세상은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준비해 온 사람들과 도전적인 사람들이 현재 e 세상을 활짝 펼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e 세상을 현실과 동떨어진 ‘巽’ 세상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e 세상이 등장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巽 세상인이 e 세상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괴리감을 갖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금부터 약 90년 전에 컨베이어 벨트에 의한 조립 생산 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을 시기에도 이 세상을 巽 세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생산 과정의 일부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조립 생산 방식에 의한 업무 변화에 완강히 거부하였다. 하지만 점차 기존 방식보다 생산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기의 수입이 증대됨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점차 사라졌다.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이를 피하려 한다면 e 세상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태도만이 남게 된다.

개인과 기업은 전향적인 태도하에 e 세상의 승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개인들은 과거의 능력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먼저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술면에서의 인터넷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기술을 이해하지 않고는 e 세상에서의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어렵고, 또한 현재 등장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판단도 불가능하다. 다음에는 여러 신문이나 기관에서 발표되는 기사를 꾸준히 보고, 개최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면서 자기의 현재 능력을 e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신하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과도기의 시기에는 창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수행해 온 업무 방식을 남이 바꾸어 주겠지 하는 생각이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머물 것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만이 새로이 가져다 준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도 자본과 인력이 모이는 e 세상으로 진출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 기회의 선점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업에게 중요한 점은 e 비즈니스로의 진출이 아니라 e 세상에서도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변신이 중요한 것이다. 재래산업들이 '굴뚝산업'이라고 폄하되고 있을 정도이지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즉 e 세계를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기업만이 진정한 e 비즈니스 세상의 승자이다. 현재의 Ford와 GM은 헨리 포드와 알프레드 슬론이라는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산업 혁명으로 태동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생산 방식과 관리 방식을 창안하였기 때문에 승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e 세상에서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업무 수행 방식을 고안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e 세상의 승자가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 구성원에게 의사 결정 능력과 책임 의식을 회복시켜주고 창의와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변혁기에는 항상 선도자가 중요했듯이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최고경영자가 기존에 굳혀진 관습과 관행을 타파하는 데에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e 세상에 적합한 환경을 구축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대다수의 **이** 세상인을 e 세상인으로 동참하는 데 우선적인 과제를 두고 있어야 한다. e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수단을 누구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보 보호, 정보 불평등, 컴퓨터 범죄 등 사회적·윤리적 측면의 역기능 문제를 조속히 해소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인터넷이 창조한 e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펼쳐져 있는 '기회의 땅'이며, **이** 세상처럼 불 필요가 없다. 앞으로 현재 우리가 일하는 장소, 사는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개인, 기업, 국가만이 e 세상의 주도권을 거머질 수 있다. 변신이 빠른 **이** 세상인일수록 더 많은 생산성, 질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게 될 것이다.